

## 트위터 신학(Twitter Theology)

: 트위터가 나를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돕는 5가지 방법

내가 트위터를 시작한 지는 1년이 못 된다. 그러나 트위터는 내 삶을 이미 변화시켜버렸다.

트위터는 설립된 지 2년 남짓 되었고 고작해야 50여명 정도의 직원에 이렇다 할 사업계획도 없는 회사이다. 너무나 자주 “폭주고래”(“fail whale” 트위터들의 수가 이 사이트의 용량을 초과했을 때 나타나는 사인)의 아이콘이 나타나는 미덥지 않고 신뢰가 가지 않는 이 사이트는 아주 빠르게 성장했다. 당신이 트위터를 이용할 때 우리 선조들이 T-자동차의 크랭크를 돌려 엔진을 켤 때 느낀 동일한 감정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나는 트위터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다. 트위터의 가치에 대해 말하자면 커뮤니케이션 혁명에 있어서 트위터의 역할(이는 내가 예배에서 트위터를 변호하게 해준다) 또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혁명(예를 들자면 이란)에 끼친 영향을 언급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좀 더 개인적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 트위터는 나로 하여금 더 나은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준다.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트위터는 미래목회를 위한 나의 실험실이 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친교

트위터는 오직 두 가지 범주만 가진다: 당신이 따르는 사람들과,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 트위터의 범주적 필수조건은 리더십이 아니라 팔로워십(followership)이다.

예수님의 범주는 “리더”이다. 나의 근본적 범주는 “따르는 자”이다. 비록 예수님이 나를 알 줄로 부르셨을 때에도 나는 여전히 “뒤에서” 이끌 뿐이다. 지난 50년 동안 교회는 신약성경에서 단 한번도 찾지 어려운 단어(리더)에 도취되어 왔고, 수백 번 발견되는 단어(“매디테스” 또는 “따르는 사람”, “제자”)를 무시해왔다. 트위터는 매일 누구를 따르며, 누가 나를 따르는가를 통해 모든 것이 리더십이 아니라 팔로워십에 의해 흥하고 쇠한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작은 예수”)는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에게 주어진 명칭(사도행전 11:26)으로 사람들이 그들 안에서 그들이 따르는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 것처럼 나를 따를라”고 했다. 트위터의 팔로워십 윤리에서는 나는 지속적으로 현실을 더욱 예수님의 방식으로 재구성하고 있다--더욱 은혜롭고, 더욱 용서하며, 더욱 사랑하고, 더욱 유머러스하게--그리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더욱 잘 따르도록 도와준다. 나는 끊임없이 격려하고, 풍성하게 하며, 감동을 주는 것을 찾는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tweets)나의 글(tweeps)을 읽고 미소를 머금든지, 머리를 고덕이면서 “예수 안에서 어찌 좋은 친구인지”라고 노래하길 원한다. 나 중심적으로 되지 않으려는 계속적인 싸움에서 트위터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돕는다.

세상의 것(또는 세상의 밖)이 아니라 세상 안에 있으라고 가르치신 분 때문에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예수님께서 트위터를 하실까?”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트위터를 하실까?”이다.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What are you doing?)라는 트위터 물음은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와 “내가 어디에서 예수님을 뵈니까?” 그리고 “내가 무엇에 주목하고 있습니까?”로 바뀌었다.

매일 새롭게 늘어나는 따르는 사람들의 목록과 잠재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의 무제한적 숫자는 매일 매일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아직 만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 2) 사운드 바이트 댓 바이트(Sound Bytes that Bite)

일상생활 속에서 이 말을 쓰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아마도 이 말의 뜻을 모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140자 이내로 설명할 수 없다면 구글 세계와 연결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선교사의 첫 번째 임무는 언어를 배우는 일이다. 구글 세계에서 로고없는 로고스는 없다.

풍자만화나 진부한 표현의 전달에 대한 각종 경고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서적과 사상가들은 140자 이내로 그들의 사상을 정제시켰다. 사실상 결정적 한 문장이 세상을 바꾸어 놓곤 했다.

트위트에 있어서 예수님보다 더 훌륭하신 분은 없다. 예수님은 간결함과 즉각성을 가지고 사운드바이트를 하시는데 있어서 마스터였다. 사실상 예수님은 복음을 명쾌하고, 기억에 남는 문장으로 복음을 트위터링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최상의 트위터로 복음을 표현하셨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을 RT(ReTweet: 다시 트위터)라고 하신다.

### 3) 외양(Surface)

누군가가 우물대고 주제의 표면을 맴도는 말을 한다고 평한다면 그를 좋게 이야기 해주는 것은 아니다. 트위터에서 가장 중요한 비판은 멍하게 만듦과 지나치게 진부함이다. 내가 오늘 아침 당신이 언제 첫술질을 끝냈는지를 꼭 알 필요가 있는가? 또는 어떤 치약을 쓰는지 알 필요가 있는가? “포크를 똑바로 들고 튀면 어떤 일이 생길까?”라는 글을 올려 포크로 코를 찌른 당신의 아이의 사진을 꼭 볼 필요가 있는가?

그러나 삶은 단지 깊이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삶은 또한 외양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나는 내 생의 대부분을 깊이를 탐구하는 직업으로 소일하는 학계에 있어왔다. 너무 깊이 들어가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좀처럼 밖으로 나오지 못하기도 한다. 소통과 관계의 공간으로 나오면 평생을 깊이를 위해서만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 단지 자신에게만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작가와 화가들처럼 영혼을 위한 아주 민감한 지진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종종 삶의 피상성에서 반대방향으로 향하며 자잘한 문제에 타협하거나 이를 즐기는 것을 거부한다. 이것이 만일 예술가들과 시인들의 자살이 아니라면 자살적 행동의 높은 발생률을 설명해주는 나의 이론이다.

우리는 깊이의 신학과 함께 외양의 신학이 필요하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만일 깊이 파면 구렁이에 네가 빠질 수 있고, 우물 바닥에는 단지 당밀밖에 없기 때문에 깊이 파는 것은 모두 싫다”라고 말한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1) 깊이를 대신한 외양과 멀리 떨어져 트위터에 대해 살펴보면 나는 내 삶을 높은 차원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매일 트위터로 이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사실을 깨닫게 된다. 트위터는 새롭게 발견된 깊이로 빠져들게 하는 기회를 준다.

삶은 사소한 일들 투성이이다. 이 사소한 일들이 쌓이고, 트위터는 이 작은 것들에 대해 감사하게 만들며, 작고 단순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게 한다. “내가 트위터를 사랑하는 이유50가지” 중33번째는 “진지한 사람들이 사소한 일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하도록 하는 곳”이라는 사실이다. “상처 난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찾아”(Finding Beauty in a Broken World, 2008)에서 테리 템페스트 윌리엄스(Terry Tempest Williams)는 “나는 진리는 오직 사물의 외양 아래에서만 발견된다고 믿어왔다...그러나 변화가 일어났다....나는 지금 내 눈이 보는 것, 내 손가락이 만지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있다”(2)고 했다.

좋은 삶은 깊이와 외양의 합주곡이다.

나에게 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은? “스윗, 당신은 정말 멋지게 알파하군요.”

#### 4) 글로벌 광장

이것이 처음부터 내가 트위터버스(twittervers)로 들어간다는 확신을 갖게 한 이유였다. 사회 미디어 전문가 아론 린(Aaron Linne)은 나에게 트위터를 중세 마을 공터로 생각하도록 도전을 주었다. 우리가 만일 천년 전에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마을의 광장 주변에서 벌어질 것이다. 하루 동안 우리는 물리적으로 서로 여러 번 마주치면서 “점심 어땠어?” “누구 일을 해주고 있어?” “손에 들고 있는 거 뭐야?”라고 하면서 인사를 나눌 것이다. 무선 기술은 오늘날 개인적 소통의 다중성을 가능하게 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연결시켜주고 있다. 트위터는 새로운 글로벌 광장이 되었다.

예언가들이 비문을 드러다 보듯이 나는 트위터의 댓글을 읽는다. 트위터는 나를 다른 사람과 연결시켜주고, 인기 있는 것, 관심을 끌고 있는 것, 소문, 새로운 글로벌 빌리지의 스타일을 알려준다. 영턱스(Young Turks: 변화를 갈망하는 역동적인 젊은이들)들이 올드 기저스(Old Geezers: 괴짜 늙은이들)이 되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은 없다. 그리고 이런 일은 하루 밤 사이에 일어난다. 사실상 나는 내 자신을 트위터 교회의 “목사”로 생각하고 싶다. 마을 광장에서 하루를 지내는(글을 올리는) 동안 나의 교인들(나는 그들은 바나바 폭풍이라고 부른다)을 격려하는 방법을 찾고, 그들의 삶에서 긍정적이고 치유하는 에너지를 찾도록 도와준다.

사회적 미디어가 제시하는 질문은 쉽게 답해질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의 글로벌 광장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의 글로벌 공동체를 대변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지 당신 자신을 비추는 거울에 불과합니까? 다른 인종, 계층, 대륙, 종교의 사람들 얼마나 많이 당신의 사회적 우주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까?

#### 5) 사회적 고독

나는 마음으로는 은둔자이다. 트위터는 은둔자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트위터는 어떤 것이나 어느 누구도 차단하지 않으면서 나 자신을 차단할 수 있게 해준다. 트위터는 동시에 나 자신을 내어주면서 결코 드러내지 않게 해준다. 이것을 사회적 고독의 하나로 트위터 도피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내 삶은 마치 역기와 같다. 사회적 측면의 엄청난 무게와 고독의 차원의 엄청난 무게 사이에, 그리고 그 사이에는 사회성과 고독을 잇는 손잡이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역기처럼 말이다. 트위터는 사회 속에서 나의 고독을 실행하게 해주고, 군중 속에서 익명이 되도록 해준다.

이 다섯 가지 이유는 왜 모든 사회적 미디어(마이스페이스, 페이스북, 등) 중에서 트위터가 가장 종교적인가를 설명해 준다.(3) 나에게서는 이 다섯 방법으로 트위터는 나의 삶을 바꾸어 놓았고 나를 더 나은 예수님의 팔로우어로 만들어 주었다.

레너드 스윗

(1) Alice in Wonderland

(2) Tom Wylie in TheBloomsbury Review, January/February 2009에서 재인용.

(3) Beth Snyder Bulik, “What Your Favorite Social Net Says about You,” Advertising Age, 13 July 2009, 6.